



## 제3회 국내체류 외국인 수행자 포럼 개최

한 목소리로 '또 참가하고 싶다' 밝혀

19개국 외국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를 더 많이 알아감과 동시에 서로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 3회 국내체류 외국인수행자포럼이 열렸는데, 미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각국에서 온 외국인스님 6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에는 조별로 스님들의 출가 동기와 서로의 수행담을 이야기하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어 둘째 날은 각국 불교의 특징과 장점을 토론 후 발표,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본국의 불교 현

실을 알리고자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한국의 참선-간화선'을 주제로 한 참선지도, 구미래 성보문화재단 구원 연구실장의 '민속 일생의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의가 마련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간화선을 처음으로 접한 스님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쉬운 설명 때문에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기도 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계도 받고 앞으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포럼에 참가한 능타스님(방글라데시)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날 스님들은 수덕사

로 자리를 옮겨 사찰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동국대 재학 중인 법상스님(네팔)은 "외국

인 스님들이 모여 한국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그전에 몰랐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편집부



## 총무원장 자승스님,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환담

연임 확정 후 첫 한국나들이에 나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의 환담을 통해 부처님 탄신지인 네팔 룸비니 성역화 불사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독실한 불자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부처님 탄신지인 룸비니를 방문했는데, 1960년대 1차 성역화 불사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내년 봄 룸비니를 직접 방문해 성역화 불사를 논의할 계획인데, 총무원장스님께서도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동행해주고, 이후 룸비니 성역화 불사에도 한국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제안했다.

자승스님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면 꼭 동행하도록 하겠다"며 반 총장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반 총장은 불교가 인류평화



를 위해 기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반 총장은 "평화 안보와 안정 개발, 인권 보호가 유엔의 3대 목표이다. 평화 안보를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면서 "오랜 역사와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불교가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인류평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 부인 유순택 여사 일행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 위치한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콩'에서 한국전통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가졌다.

불교신문 신재호 기자

## 국경·종교·인종의 벽을 넘는 최고 권위 '만해대상'

만해대상(萬海大賞)은 한평생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시고 순국한 만해 한용운 선생(1879~1944)의 높은 사상과 깊은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하고 백담사 만해마을이 수여하는 상이다.

만해의 생명사상과 사랑의 철학, 그리고 평화사상을 기려 매년 만해대상 평화·문학·학술·예술·실천·포교부문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8월 12일 만해축전 및 '제1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평화부문 수상자 코이탈라 이사장은 네팔에서 마이티네팔재단을 이끌며 팔려가는 여성과 소녀 1만2천여 명을 구해낸 성노예 해방가로서, 2010년 미국 CNN에서 선정한 '올 해의 영웅'이기도 하다. 실천부문에 헤티아라트 박사



는 고고학 연구를 통해 고대 인도의 정치·경제·종교와 불교사 이해에 큰 업적을 남겨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학부문의 모엔은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 장편소설 <홍까오랑 가족>의 저자로, 아시아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작가로 꼽히는 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함께 수상한 이근배 시인은 1961년 등단해 50여 년간 시와 시조를 창작하며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영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9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조의연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장의 발제와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 묘각사 여여스님, 진우기 전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 홍희연 국제포교사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사찰 및 불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불교용어 영문표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틀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통해 통일화된 영문 불교용어와 표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혼재돼 사용됐던 영문 불교용어 및 표기법을 통일화하고,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번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렴하여 연내 '용어집'을 제작,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및 불교단체, 관광가이드, 종립학교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화선으로 세계일화 꽃피우는 '안국선원'

서울과 부산 안국선원은 3,0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선수행과 정진에 매진하는 도량이다.

오늘날 전도망상의 혼돈 속에서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과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하여 선의 기치로써 절대평등의 세계를 열고자 간화수행자들이 온몸으로 화두의 답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

선원장인 수불스님은 1990년대부터 간화선 수행의 뜻을 올렸다. 올해로 22년간 25차례에 걸쳐 약 2만 명에게 간화선 수행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1년 동안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100여 명의 지원자가 모이면 7박 8일간 집중적으로 화두를 잡게 하는데, 두 도시에서 14~16회 진행하며 3천명이 동참하고 있다.

화두를 들 때 많은 경계에 부딪쳐, 자칫 두려움이 몰려오고 겁이 나서 화두를 놓고 물러나기 쉽다. 이때 선지식은 공부인이 물러섬 없이 정진하여 정신적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간화선 수행의 승패는 전적으로 선지식의 지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수불스님은 수행기간 동안 수행자 곁에서 수행 도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을 살피고 자비로써 일일이 응대한다.



세계인은 누구나 안정된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가 다함께 진리의 세계를 명철하게 보고, 진리의 주체적 자각 속에서 살아가야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그레아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세계가 보장된다.

곧 선은 인간 속의 이기적 배타주의를 돌려 자기 본래면목에 사무치게 하고, 세계와



역사를 자기 생명 속에서 합일하여 더불어 사는 자비문에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안국선원은 인류의 마음에 진리의 외침이 울리게 하고, 세계만방에 지혜의 눈을 밝히는 선의 범세계화로 만민평등의 세계일화를 우주법계에 가득 꽃피우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2006년부터 '불교학 연구를 위한 안국장학회'를 설립해 하버드대에 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동

국대의 국제선센터 설립에도 기금을 출연하는 등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선원장 수불스님은 동국대 국제선센터 개원 고별식에서 "그 동안 이 땅에서 고스란히 보존해 온 간화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 명품이다. 간화선 수행을 통해 세계인들이 무명을 밝히고,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절인연이 열리고 있다. 최고 지성인들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인들이 간화선 수행을 배우려 한국으로 몰려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안국선원 (051)583-0993  
www.ahnkookzen.org

## 국제선센터, '세계청소년불자교류' 템플스테이

세계 젊은 불자들간의 교류 및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짐을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는 8월 25일~29일까지 세계청소년 불자교류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Now and Here, awakened life!>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태국에 본부를 둔 세계청소년불자연합(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의 주최와 국제선센터 주관으로 실시됐다. 국내에서는 국제교류 전문 네트워크인 15~25세 이하 청소년 불자로 구성된 'CLUB 25'가 참가, 대만,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청소년 불자들과 함께 한국 불교의 맛, 멋, 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제선센터에서는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침, 저녁 예불과 발우공양, 참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26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신도들과 함께 용맹정진 수행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사찰의 수행과 일반 신도들의 수행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다.

이어 셋째 날에는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와 어산으로 사시불공 올리는 것을 시연했다. 전통불교음악 범패공연을 보고, 태국잡지 '선과 영광'의 편집인인 바나리(Wanraee Kobpungton)는 "한국불교 음악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말하며 "한국불교를 태국에 계속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날에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취를 느



끼게 하는 경복궁, 대한불교조계종의 직할교구 본사(本寺)이자 한국불교 중심지인 조계사, 인사동과 남산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밤, 컬처 나잇(culture night)에서의 국가별 공연에서는 청소년 불자들의 장기와 재능과 열정을 맞본 시간이었다. 늦은 밤까지 회향 시간이 다가옴을 안타까워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축하공연으로는 한국의 태권도 시범을 보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WFBY 회장 폰차이는 "작년 대만의 경우는 체험보다는 학습 위주였는데, 한국 프로그램은 체험 위주라 참가한 아이들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다음 대회도 체험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제선센터 02-2650-2200

### ▶ 정정합니다

지난호 국제선센터 기사 중에서 "국제부 업무로는 내국인을 ~ 있다."를 "국제부 업무로는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로 정정합니다.

## 종학연구소,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8월 20일부터 이틀간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서양의 간화선 연구자들이 한국불교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하는 자리였는데,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물론 재가불자, 일반인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하여 간화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종학연구소장 종호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간화선을 실증하고,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간화선의 세계화와 체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라는 주제로 열



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과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등 국내외 학자 29명이 참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학자들은 학술대회에 앞서 15일부터 닷새 동안 백담사에서 실제로 간화선수행을 체험했으며, 22일~23일에는 석종사와 봉암사, 동화사, 직지사를 방문해 진제 대종사, 혜곡스님, 적명스님과 대담시간을 가졌다. 종호스님은 "미국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승 수행이나 (남방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간화선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간화선 수행 방법이 오롯이 유지돼 있는 한국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외국 학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지원해 참가인원을 제한해야 했다"면서 "학자들이 한국에서 학술대회는 물론 직접 간화선을 체험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종학연구소 02-2260-8512 / 사진제공, 법보신문



### 'Buddhism and Culture' 계간지로 재탄생

'Buddhism and Culture'를 대한불교진흥원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월간 '불교문화'의 별책으로 발행해 오던 영문 잡지를 8월 1일부터 계간으로 독립, 불교상당심리 전문잡지로 새롭게 발간했다. 불교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병리현상을 심리 치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대한불교진흥원 02-719-1855



# 월드머시코리아, 미얀마 교육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사)월드머시코리아는 2011년 첫 해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미얀마 마웨이주 넷마웃군 레부마을 (Myanmar, Magway Division, Natmawk Township, Laboo Village)의 고등학교 건립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이미 국내 교육지원 사업으로 종립학교 (동국대) 및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영등포구 내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 및 긴급구호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해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얀마의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Laboo Village, 현진스님(대표이사)과 인연이 되어 학교건립 사업을 협의,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정식 학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2개 동의 건물이 필요한데, 올해 안에 교실 한 동을(A동) 완공하고, 나머지 교실 한 동(B동)과

부속 건물(화장실) 및 부대시설(발전시설 및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우물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미얀마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학생 장학사업도 같이 계획하고 있다.

이에 현진스님과 미얀마 지부장, 법인이사가 지난 6월 초 1차 방문에 이어, 8월 1일~5일까지 2차 현지방문조사를 다녀왔다.

특히, 2차 방문에서는 현지 Laboo Village(레부 마을) 자치회와 '레부 마을 학교 건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이 미얀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부처님 앞에 기원하며, 불자님들의 가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월드머시코리아 070-4411-9136

## 더프라미스, 양곤에 '아레요아학교' 준공식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The Promise: 이사장 법동스님) 미얀마 지부는 아레요아 학교 증축 준공식을 맞아 학교 측과 공동으로 축하행사를 열었다. 7월 20일 열린 이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방 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더프라미스의 한명로 공동대표(세무법인 삼성 대표)와 후원자인 (주)삼동인터내셔널의 김명덕 이사장, 이양명 사무처장, 육관용 편집국장(원광 주간지)이 한국에서 행사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학예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 모두가 뿌듯한 시간을 가졌으며, 아레요아 학교장과 한명로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 후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미얀마 전통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전해져 한국 후원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였다.

더프라미스 미얀마 지부에 학교 지원을

요청한 아레요아 학교는 양곤 외곽 지역에 위치한 중학수료과정(Post-Primary School)이다. 건물에 지붕을 이어 만든 곳을 교실로 사용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과 교실 상태가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이번 증축을 계기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얀마의 중등교육의 등록은 학령기 아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도시 농촌 간, 그리고 빈부격차로 교육 혜택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미얀마 정부는 필요 설비를 갖춘 초등학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지속성을 확대 하고자 2001년 중학수료과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연장 실시하는 것으로 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

더프라미스 행복나눔팀 팀장 양혜운

02-735-3119



[위드아시아 전근수 캄보디아 지부장 활동기 편지]

‘끄로웃 마을에도 희망의 빛이 있기를...’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인 라오족들이 살고 있는 끄로웃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제가 묵고 있는 뿌레이끄랑 마을에서 90세 된 노인이 태국어와 비슷한 말을 사용하기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 보았더니 자신은 라오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알아들은 것은 라오어가 태국어와 50% 정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라오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뿌레이끄랑 마을에서 거리는 멀지 않지만 도로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오토바이로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을 자세히 둘러보니 코코넛 잎으로 엮은 지붕과 가느다란 나무로 만든 기둥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는 집들이 대단히 안스럽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집에는 화장실도 없고, 썩어 악취가 나는 웅덩이와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마을 전체가 너무나 더러워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불결한 위생환경 상태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주(우리의 도에 해당)인 뿌레이벙주에 있는 이곳 끄로웃마을은 환자가 많이 속출하고 각종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머무르는 동안에도 30세가량 되어 보이는 아버지가 죽고, 뒤이어 3일 만에 10살 된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의하면 죽은 아버지와 딸은 병원은 고사하고, 약 한 번 먹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그나마 6km 넘는 거리에 있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답사를 통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난 5월에 우선적으로 “위드아시아 끄로웃 어린이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한 분이 자기 집 아래채를 내어 주어서 그곳에 공부방을 개설하고, 인근마을에 사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한 썸 쓰라이빠(20세)라는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모집을 하고보니 13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방은 30여 평에 책상과 걸상이 없어 오전, 오후반으로 각각 60여 명이 교실 바닥에 앉다보니 좁아서 편하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불편한 기색도 없이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부에 열중합니다. 캄보디아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잘 가지 않는 편인데 아이들이 수업에 열중하는 것은 그동안 배움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고 교사 1명이 오전 오후반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얼마 전 6월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리타(23세)라는 선생님을 1명 더 구했습니다.

봉사자인 저 역시 현재 현지인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데 쌀이 좋지 않아 밥 색깔이 회색빛이고, 밥맛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깔깔하기만 합니다. 들판이 드넓은데도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관개수로가 되어있지 않아서 1모작 농사를 짓다보니 야채를 비롯해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기들이 너무 많아 물리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족들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상도 사치가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버젓한 어린이 공부방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마을에 공동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마을 공동 화장실이 지원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각종 세균과 위생 관련 질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곳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열어 나갑니다.

글\_ 전근수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051-322-7902





# 뉴욕 관음사, 10년 불사로 여법한 도량 마련



뉴욕 관음사가 10년에 걸친 불사를 마무리했다.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공사였어요. 온갖 곡절을 겪으며 10년 만에 마쳤네요.” 지현스님이 말했다. “지난 10년간 이 불사 때문에 많은 걸 배웠어요.”

뉴욕 관음사는 2001년 12월말 현 위치인 뉴욕 베이사이드 건물을 구입하였다.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법당으로 쓰고자 했던 2층이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지현스님은 벽을 터야겠다고 생각했다. 2002년도 초과일 행사를 성대하게 봉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주변에서

2주면 충분하다는 부추김도 있었다.

“막상 벽을 뜯고 보니 온갖 전선과 파이프들이 뒤엉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현스님의 회고이다. “이때부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난이 시작되었지요.”

일단 뜯고 나니 하나를 손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니 아예 집 전체를 뜯어서 공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건축 일에 문외한인 스님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인건비와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조금만 건드려도 500불, 700불, 1500불 이렇게 달라고 했지요. 애초 3만불 예산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50만불 이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건물 자체도 은행융자를 얻어서 구입한 것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공사비로 엄청난 재정이 지출되다 보니 당장 경제형편이 심각해졌다. 공사는 늘어지고 주머니의 돈이 바닥나 일센트짜리까지 털어 끼니를 해결한 적도 있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사찰이 인근에 들어온 데 반감을 가진 주민이 불법시공을 빌미로 빌딩 디파트먼트(Building Department)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 통지서까지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벌금 부분은 부처님의 가피와 여러 경

로를 통해 간신히 해결하였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한 채 공사부터 시작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건축 관련 분야에선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지현스님은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사가 끝없이 늘어지자 절을 찾는 신도들도 부쩍 줄어들었다. 당장 출입구와 계단을 드나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목탁소리 때문에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해결될 문제들이었다.

오랜 세월 공사에 시달리면서 지현스님은 건강이 무척 악화되었다. 유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던 건축업자 때문에, 자재에서 분출된 유해가스로 두통을 얻고 시력이 감퇴되었다.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지만 청력감퇴와 마비증세도 왔었다.

뉴욕 관음사와 지현스님이 이런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것은 최현석 신도회장. 최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상 스님 곁을 지켰다. 자신의 쌈지돈을 털어 건자재를 사 나르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했다.

인터뷰가 잡혔던 날 바로 직전까지도

지현스님은 도량 정비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숨도 돌리지 못했던 터였다. 공사가 끝나야 취재를 허용한다고 필자와의 만남도 여러 번 연기했었다. 불사는 온갖 대가를 치른 끝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공사가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전 법당도 단장을 마쳤고 지하 하수도, 바닥타일, 기둥 그리고 입구의 화단까지 모두 손을 봐 새 집이 되었다. 여법한 도량이 된 것이다.

불사를 모두 마친 뉴욕관음사는 그러나 아직 숙제가 남아 있다. 이 도량 건물을 정식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뉴욕관음사는 1995년 뉴욕 주에 등록된 정식 종교법인이다. 그러나 사찰 건물을 구입할 때 스님 개인 명의의 용자로 건물을 매입하는 바람에 건물만큼은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비영리단체법에 따르면 단돈 1불이라도 빛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공재산으로 등록될 수 없기에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지현스님은 “하루빨리 남은 용자금까지 다 갚아 이 건물까지도 모든 불자님들에게 회향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난관도 헤쳐 나왔으니 열심히 포교하다 보면 이 소원이 성취되겠지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정리, 이종권(편집위원)

뉴욕 관음사 +1-718-631-4556

## 뉴욕 불광선원, 현각스님 초청법회 및 가족 캠핑

뉴욕 불광선원이 8월 7일 현각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하였다. 베스트셀러 만행의 저자로 2008년 한국을 떠나 현재 유럽에서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현각스님은 이날 불광선원의 초청법회로 방미하여 300여 불자들에게 유창한 한국말로 법문을 전했다.

현각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힘든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며 부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큰 복”이라며 이날 모인 참석자들을 치하했다. 또한 독일에서의 포교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내 겉모습은 서양인이거나 내 안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독일 현지인들과 맞지 않아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전하며,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이 발견해 가는 것들 사이의 유사점을 보면 너무 놀랍다. 이 때문에 유럽인들이 불교를 현대적 가르침으로 여기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2일부터 2박 3일간의 불광선원 어린이부의 여름 가족 캠핑이 베어마운틴 세븐 레이크의 티아로티 씨클(Bear Mountain 7 Lake Drive, Tiorati Circle)의 캠프장에서 있었다.

한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 오후, 불광선원의 주차장으로 한주일의 일과를 마친 어린이부의 부모님들이 설레는 모습으로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었다. 마침 6주간의 여름학교 종강식이 있었던 날이었기



에 법당에 도착하는 엄마 아빠를 두 팔로 환호하는 모습이였다.

선문스님은 가족 캠핑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하여 “법사스님으로서, 평소 법회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고작 한 시간도 못되게 법당 안에서 형식적인 만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가족 간에 친목도모와 화합을 꾀하면서, 새로 오신 가족들에겐 자연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스스로없이 공감대를 갖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 고려사, 새 주지 묘경스님 취임

LA 고려사가 새 주지스님을 맞았다. 고려사는 8월 7일 신임주지 취임식을 갖고 묘경스님을 고려사 5대 주지로 추대하였다. 고려사는 승보종찰 송광사 LA 분원으로 1980년 개원한 이래 초대 주지 현호스님에 이어 원경, 진경, 범경스님을 거쳐 이번에 5대 주지로 소임을 맡게 되었다. 고려사는 1980년 12월 21일 조계총림 방장을 역임한 구산스님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한 이후 보성스님과 범정스님이 2대와 3대 회주로 추대된 바 있는 미주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이날 고려사 5대 주지 취임식에서는 회주 현호스님의 법문과 묘경스님의 취임사 그리고 LA 불일회 이정규 회장의 축사와 운영위원회 전기병 거사님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했던 모든 대중들의 박수 속에 고려사의 발전과 미주불교 발전의 기원을 담아 새 주지 스님을 맞이하였다. 신임 묘경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천일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지를 맡겠습니다. 은사스님의 가르침처럼 신심과 원력과 공심을 갖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미국불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고려사 주지를 맡게 된 묘경스님은 1998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현호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2003년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고려사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6개월씩 머물며 정진해 왔으며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 법륜사 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L.A.고려사 +1-323-957-0500



이번이 두 번째인 여름 가족 캠핑은, 어린이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손꼽아 기다리신다. 어찌 보면, 2박 3일간 전기도 안 들어오고,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지는 산속, 공동 화장실도 20분이나 걸리는 이곳이 사회속의 크고 작은 규칙도 내려놓을 수 있고, 아이들처럼 격의 없이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뻘뻘이 둘러선 아름드리나무들과 그 사이로 열린 푸른 하늘은 자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불제자들의 커뮤니티가 우리의 이민 사회에 더욱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밤이었다.

뉴욕 불광선원 +1-845-359-5151



# 호주 정법사, '종교부지로 확정' 도약의 터전 마련

시드니 정법사의 창건은 1992년 4월 만 오 기후스님께서 시드니에 오셔서 당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찰 운영이 어려웠던 달마사와 불광사를 정법사에 통합하고, 5월 현재 주소지인 2 Elliott Street의 지반을 매입하고 본격적인 법회활동을 하게 된다.

사세가 점점 불어남에 따라 1998년 3월 현재 법당인 2 Victory Ave를 구입하게 되었고, 2000년 5월 법당을 증개축해서 120여명의 신도들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후 2003년 12월 4 Elliott Street를 구입, 장차 한국불교가 호주 시드니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

신병치료차 기후스님께서 귀국하는 사이 2005년 1월부터 학문을 목적으로 정법사에 머물고 있던 법등스님이 주지 소임으로 살림을 꾸리며 2009년 6월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통도사에서 수행하시던 원성스님께서 주지소임으로 파견되어 6



Elliott Street를 매입하기 위해 1년간을 교섭, 드디어 2010년 5월 구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종교부지 확정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 호주 건축법이 요구하는 공사 개시를 위한 서류들을 Strathfield Council에 접수한 후, 손수 장비를 구입하고 뜻있는 불자들의 봉사를 기반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삼보정재를 아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드디어 2011년 8월 12일 종교부지

최종확정을 받기에 이른다.

해외 사찰 운영의 어려움이란 실로 가슴 저리다. 그래도 어려운 이민생활에서의 고단함을 일요법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스님과 신도님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종교부지 확정을 이루어냈고, 장차 한국불교가 호주 시드니에서 꽃피울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정법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50여 불자들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운영과 중고등학생의 밴드부 활동은 활기를 더하고, 청년회의 봉사활동은 법회의 윤회유가 되고, 중장년부 정법사랑 모임은 굶은일을 마다않는 봉사로 한결 빛을 낸다. 아울러 거사회와 삼사회 어르신들의 활동도 활기차다.

이번 정법사의 종교부지 최종 확정에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얻은 수확이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호주에서 한국불교가 뿌리 내리는데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법사는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상당히 겪었다. 종교부지 확정으로 호주 정부와 법의 인정과 보호 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정법사 +61-2-9462-7672

## 아르헨티나 고려사, 경로잔치

남극의 한파가 며칠 기승을 부리더니, 금요일부터 서서히 풀린다. 큰일을 앞두고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노심초사 했는데 모두의 보살핌 덕분이다.

아르헨티나 고려사에서는 칠월 칠석을 즈음하여 경로잔치를 한다. 5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리가 잡히는 듯하다.

교민사회의 다른 단체들도 경로잔치를 하지만, 이때쯤이면 고려사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타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옛날 한국에서 절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랜만에 절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

고려사에서 준비하는 잔치라고, 나물 반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만큼은 고기가 빠질 수 없다. 우리는 갈비찜을 주 메뉴로 올린다.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드시기 편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효심이 곧 불심(佛心)이며, 효행이 곧 불행(佛行)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님 섬기는 마음과 보양 올린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올해 경로잔치는 8월 7일(일)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다고 했지만 12시부터 와서 기

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다. 음식을 차려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아침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겠다 싶어서 드시라고 하니 너무들 좋아하신다.

오늘 만큼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민 사회에서 최고령이신 100세 할아버지께서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나오셨다. 이가 없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지만 경로잔치 한다고 하니 특별히 자제분들한테 부탁해서 나오셨다. 연신나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다. 오랜만의 외출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같이 기쁘다.

나의 손을 꼭 잡고 “식구도 적는데 잊지 않고 우리네들을 챙겨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격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또한, 경로잔치를 위해 재야 민속 국악원 회원들이 민요, 탈춤, 장구 공연을 해주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적은 인원의 교민사회에서 1년에 한 번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3시간여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고려사 신도님들, 모두 근엄하셨습니다.

글\_ 주지 불원스님

아르헨티나 고려사 +54-11-4632-1800

##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내 온 중앙아시아의 불교 이야기 ①

우즈베키스탄 자은사는 천산산맥과 중국 사람들이 총령이라고 부르는 파미르 고원의 서쪽에 자리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다. 서쪽으로 더 가면 검은 모래라는 뜻의 사막이 나오고, 안세고스님의 고향인 안식국이 있던 이란이 나온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과 인도에 갈 수 있다.

기온은 여름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남부지방은 50도까지도 오르기도 한다.

천산에는 만년설이 있어 항상 녹아 서쪽으로 흘러내려, 타슈켄트나 알마티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천혜의 고장이자다. 또한 석유 가스 금 등의 천연자원이 엄청난 자원부국이다. 소련시기에는 카자흐스탄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살기가 좋았는데, 소련이 해체된 후 카자흐스탄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무역을 장려하였으며, 외국기업들에 대한 부패를 강력히 통제, 우즈베키스탄보다 경제력도 높고 살기도 훨씬 좋아졌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자질과 업연(業緣)에 있어서 공업(公業)과 사업(私業)과의 관계를 잘 인식할 수 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찬란한 페르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세습왕조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리스 사람들의 반대와 전투에서의 부상 후유증 등으로 목숨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후,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나뉘어 통치되었으며 풍부한 물산과 중계무역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그레코-박트리아 문명을 만들었다.

그 뒤 곧바로 몽골고원에 살던 월지



인들이 흉노에 쫓겨 이곳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았다. 월지인은 요서회랑에 있던 고조선과 혈연적 유대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중국의 사서에는 나와 있다.

이곳을 정복하여 정착한 월지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나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보면 왕족들과 일부 귀족들은 자기들이 부처님의 가계(家系)와 같은 동일한 동족이라고 생각하며 이슬람에 대항하여 불교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기술하였다. 이 월지인들이 페르시아-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 불상을 만들고 대승불교를 키워나갔으며,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승대덕들이 불교를 전파하였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묵호는 우즈베키스탄 헤르가나 지방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당 왕조말까지 이곳을 서역, 천축 또는 인도, 호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부처님께서 내세의 부처님으로 미륵 부처님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일곱 분의 지장보살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호에 계속)

글\_ 주지 조주스님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998-71-256-2207





# 미국불교, 그들의 미래는?

- 부디스트 도어 [2011. 8. 14]

**뉴욕** - 뉴욕의 북쪽 작은 마을에 있는 게리슨연구소에서 초청인사로 구성된 '마하의회'가 영향력 있는 잡지와 선센터의 후원으로 열렸다. 티베트 스님들, 몸에 문신을 한 다르마 펑크의 교수들과 일본 선불교계의 수행자들이 참가했다. 마하의회는 성장일로에 있는 미국 불교계에 반향을 일으켰고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서양불교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불교를 신세대에게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인도나 아시아 불자들의 관계, 상업화된 건강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불교만의 역할, 아시아 이민사회가 믿는 불교에서 1950년대 이후 비아시아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교가 된 불교의 어려움, 미국 사회에서의 불교의 성장과 편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불교신자는 200만 명이상이며 수백 개의 선센터가 도시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선을 지도하는 직업이라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곤 했는데, 지금은 주유소나 슈퍼마켓에서도 선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이 의회를 조직한 잭 콘필드가 말했다. 미국 불교의 주요 지도자가 이끈 마하의회는 미국 불자들을 결집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다양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상호존중

의 마음으로 만나 배우려고 한다고 잭 콘필드가 말했다.

마하의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남자가 많았다. 나이는 평균 50대였다. 서양 불교지도자 네트워크의 설립자 라마 스리야 다스, 삼발라 선의 출판인 제임스 기미언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상선재단 설립자 노먼 피셔 등의 유명인과 비교적 덜 알려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41살의 위빠사나 수행자 아누스카 파난도폴은 평상시 만나기 힘든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남녀평등, 인종문제와 성 정체성과 같은 구세대가 간과했을지도 모를 사회적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질타도 있었다. 불교지도자들의 회의였음에도 설법이나 지도자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 공식 토론에서 거론하지 않았고, 불교지도자는 선과 수행법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기존 관념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심리치료사인 데이비드 브레이저가 말했다.

콘필드도 이민자 불교계와 개종한 불자들 불리는 미국인 불교지도자 간에 상당한 분열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스님들

- 방콕 포스트 [2011. 8. 18]

**태국** - 이산에 사는 세 명의 스님이 삶과 정치적 식견이 40년 전과는 현저히 달라진 농촌에서 자신들이 해온 일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방콕에 모였다.

루앙 포 앙스님은 왓 후에이 부영사의 주지로 "불평등 혹은 발전이라는 고상한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주변이 온통 결핍되어 있어 처음 스님이 되었을 때부터 가난한데도 음식을 공양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하고 늘 자신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길과 다리를 놓아 주민들이 병원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농작물을 팔 수 있게 했다. 약국을 만들고 주사기 사용법을 배워 도움을 주었으며, 집을 지어주고, 논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갔다. 마을금고를 만들고 복지자금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해 땅을 보시 받아 공동 농

산물 저장고를 지었다. 또한, 저녁에는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설법함으로써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

루앙 타 차이르스님은 마피아로부터 주민과 함께 마을 숲을 지켜냈다. 프라 크루 솜스리스님은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를 세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집에 농산물 가게를 열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마을금고를 투명하게 운영해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었다. 스님은 "함께 일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가치이다. 투명한 경영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지역사회는 정치적 분열 등의 어떠한 도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스님들은 각자 위치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었다.

## 중국불교협회, 일본 지진 피해자 위로법회 봉행

- 불교재선, www.fjnet.com [2011. 8. 30]

**중국** - 중국불교협회 대표단(단장 전인스님) 27명은 8월 24일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지은사를 방문해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다.

지은사 주지스님은 인사말에서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이 지은사를 방문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위로법회를 봉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초대회장이 중요하게 여겼던 황금유대를 기반으로 중·일 양국 불교계가 친선 우호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건넸다. 중국불교협회 전인회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5일 위로법회를 마친 중국불교협회 대표단(단장 전인스님)은 일본 관서 지역의 묘심사와 본원사를 순방하며 일본불교계와 우호교류의 시간을 다지고 8월 30일에 귀국하였다

## 티베트 스님, 까루린포체의 버나비 방문

- 버나비 뉴스페이퍼 [2011. 8. 18]

**캐나다** - 버나비의 한 작은 불교센터가 설립자의 환생이라 여겨지는 린포체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가 불교를 세계에 전파하기 전에는 까루린포체가 그 임무를 수행했었다.

1972년 까루린포체가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버나비(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는 도시에 내려가 서양 최초 불교센터 중 하나인 가꾸쿰캅 출링을 세웠다.

까루린포체는 서양 곳곳에 100개의 센터를 열었고, 1989년 열반하기 전 한 라마와 그 부인에게 아기를 가질 것을 요청했다. 그 아기가 1990년에 태어났는데, 까루린포체의 환생으로 인정을 받았다.

센터의 대변인 패트릭 코울링은 "전생과 현생의 두 까루린포체가 한 분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은 젊은 까루린포체는 인도의 다질링에 있는 높은 산에 태어났고, 인터넷과 페이스북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다. 현대적 수단을 통합하여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그가 맡은 소명 중 하나이다."라고 환생의 인연을 말했다.



## 아프카니스탄, 불교유적지의 재건

- 부디스트 채널 [2011. 7. 28]

**아프카니스탄** - 10년 전 아프카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비이슬람적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중부지역의 사암(砂巖)절벽에 조각된 유명한 불상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물이었다. 이 불상은 이슬람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수 세기 전인 6세기부터 모래 가득한 바미안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2001년 폭약으로 이 불상들을 파괴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컸던 불상이 날라 갔고,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UN의 교육, 과학과 문화기구에서 활동하는 팀 및 유물·유적 전달 국제위원회 등이 나서서 조각난 불상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 출신 미술 역사학자이자 조각가인 버트 프락센텔러는 지난 8년

동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불상 조각의 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할 때 사용되었던 방법(anastylosis)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물의 원래 조각들과 현대의 재료 등을 결합하여 복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복구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재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 계획되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지역단체장인 하비바 사라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바미안계곡이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덜 위험한 곳의 하나라는 점이다.



바미안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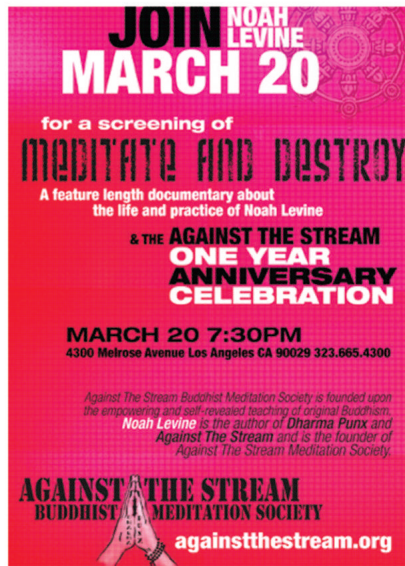
## 집중조명

## 노아 르빈, Dharma Punk를 이끄는 차세대 불교지도자

달마 펑크는 2002년 노아 르빈이 방황했던 청소년기를 거쳐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것에 헌신하게 된 삶을 기록한 책으로 출간을 계기로 달마펑크공동체가 창립됐다. 노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펑크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만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임이다. 불교를 찾을 것 같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신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아 르빈은 미국 불교의 유명한 저술가 스테판 르빈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미국 사회의 주류문화에 반항하며 술과 마약, 범죄를 일삼는 문제아였다. 청소년기를 펑크음악 클럽이나 교도소에서 보냈다. 17세 때 수감생활 중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의 고통 속에서 12단계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행동이 이기적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변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버지 스테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단순한 수행법을 배웠다. 스테판은 현실의 어려움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



노아 르빈에 대한 다큐멘터리 포스터

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인함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현재 노아에게 먹을 것, 잘침대와 입을 옷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버지로 부터 평생 들은 이야기지만 그 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행이 히피들의 취미이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앉아 참선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수감생활 중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을 체험했고, 이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싶은 의지와 참선이 마지막 희망임을 보았다.

12단계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삶의 고통이 단순히 중독 때문이 아니며 참선만이 고통과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불교수행에 전념했고 힌두교, 수피 등 수행의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 서남아시아의 절들과 인도의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수행을 시작한지 10년 쯤 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수감되었던 바로 그 교도소에서 소년범들에게 참선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대학에도 진학하여 상담심리학을 배웠고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2000년 스승인 잭 콘필드의 지도 아래 4년에 걸쳐 불교지도자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로써 시타르타에 이르는 불교수행자들의 법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다.

노아는 3권의 책을 썼다. 자서전 성격의 '다르마 펑크'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고, 2007년에 나온 '흐름을 거슬러(Against the Stream)'는 불교를 일상생활에 접목해 설명한다. 이 책으로 인해 방황하는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 등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활동에 헌신하는 '몸과 마음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불교의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는 지도자 모임을 만들었다. '마음의 혁명(The Heart of the Revolution)'은 자비, 용서와 연민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올해 출판되었다.

노아는 LA의 산타모니카와 할리우드에 있는 선센터에서 수행을 지도하며 참선수업을 도와 줄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개인지도로 훈련시키고 있다. 다르마 펑크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20여 개의 소속 불교 선센터가 있다. 처음 산타 크루즈의 노아의 집 거실에서 시작한 작은 선수행 모임은 주류 불교의 대안으로 등장하며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불교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노아의 목표는 청소년기의 수감생활의 경험을 살려 소년범과 재소자, 부랑자들을 돕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노아는 타종교의 신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12단계 치료법에 대응해 순수한 불교적 방법으로 알콜과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편집부

##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는 참선

- 쇼갈린포체

불교는 우리가 본래 한없는 지혜, 광대한 자비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성품에 가닿지 못하므로 잠재력의 일부도 잘 쓰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과 최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과 그들의 욕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도와야 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다. 행복의 창조자이면서 고통의 창조자이고 열반과 윤회의 창조자이다. 윤회는 태어남과 죽음, 곧 존재의 수레바퀴이고 괴로움으로 대표되며, 파괴적인 감정과 악한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열반은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상태로 불성이나 깨달음이라 말해진다. 한 선사가 말했다. "윤회는 밖으로 향한 마음이라 대상에 빠지고 열반은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여 참성품을 알아낸다. 마음이 안으로 향했다 함은 마음의 참된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라 여긴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 단지 마음의 겉모습이며 햇빛과 같고, 반면 마음의 본성품은 태양 그 자체와 같다. 마음의 현상에만 빠져 있으면 마음의 근본 성품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 밖으로 향할지 아니면 참된 성품을 보면서 안으로 향할지..."

참선을 통해 초월의 상태에 도달하면 우



화이자테파 발굴 불상

리는 단지 본래 마음에서 편안히 쉬게 된다. 어떤 비교나 개념, 희망과 공포가 없으며, 그러나 확고한 신념과 상상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면 파란 하늘같은 참된 성품이 드러나 빛난다. 태양의 빛과 그 따뜻한 열기와 같은 지혜와 자비심이 마음 깊은 것에서 솟아날 것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눈 아래 모든 것이 펼쳐지듯 다른 이의 욕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통찰력이 생긴다. 깊고도 사무치는 사랑과 함께 광대한 자비심이 올라온다.

수행을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융합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더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와 경계가 허물어진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 관대해지고 모든 악의가 마음속에서 제거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

## 씨앗 심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행

- 벨라온라인, 2011. 8. 14

'씨앗 심기'는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선(禪)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좋아할 책이다. 틱낫한스님이 저술했다. 프랑스에 있는 플럼빌리지 공동체에서 있는 어린이 수련활동에 참여한 스님, 선생님과 부모, 틱낫한 스님의 경험과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주제에 대한 틱낫한스님의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숨을 알아차리기, 선, 자비, 자연, 괴로움, 치유, 나이를 먹는 것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관련된 활동, 지도자가 인도하는 선수행이 나오고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주제는 다 불교에 근거하고 있지만 종교적 색채 없이 소개되기 때문에 선수행의 경험이 없는 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노래를 담은 CD가 부록으로 나온다. CD에는 청소년 대상의 나의 숨, 작은 돌 수행과 깊이 이완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가지 수행에 상응하는 4개의 수행카드가 또한 부록 속에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행은 꽃같이 신선하고 순수한 느낌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카드에 "숨을 들이 쉬세요. 나는 나 자신과 이웃을 꽃같이 봅니다." 내 쉬면서 "나는 나 자체로써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매우 싱그럽다고 느낍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 다음 카드는 산과 같이 굳건하고, 가만히 있는 물과 같이 고요하고, 그리고 확 트인 허공 같은 자유로움에 집중한다.

틱낫한스님과 아이들 간에 오갔던 대화

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의 예를 소개한다.

아이: 몇 살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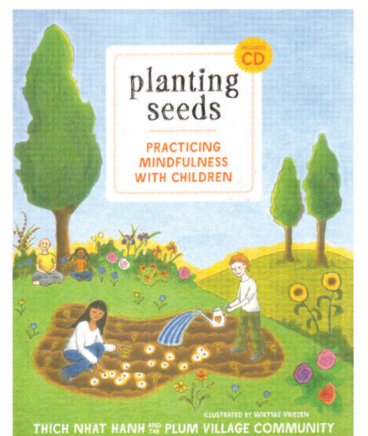
스님: 글썄, 너는 몇 살이지?

아이: 6살입니다.

스님: 잘 들어봐요. 난 부처님에서 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난 2600살입니다.

아이: 와!

스님: 난 나의 아버지에서 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10살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서 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 속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또한 6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난 저 어린이 속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어린이는 나를 미래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어렵니다. 6살이니까요.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나를 봅니다. 나는 여러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나요?





#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에서 마주협 첫 해외봉사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지관 스님)는 “아유보완 스리랑카 & 코리아” 해외봉사단을 조직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마주협 공동대표인 도제스님을 단장으로 한 이번 봉사활동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아름다운 동행,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스복지재단과 시각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의료봉사, 교육봉사, 시설수리봉사를 하였다. 봉사단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 안흥사 다문화가족 센터, 한국YBA 등 회원단체를 포함하여 순천향대학교 의료봉사단, 동국대학교 참사랑봉사단 등이 함께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봉사일정은 14일 김포 옹화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15일 오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6일 새벽에 한스문화복지재단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센터에 도착하였다. 16일 오전에 한스복지재단에서 준비해 준 환영식을 시작으로 교육 봉사 및 의료 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교육 봉사팀은 한스복지재단에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지개전 놀이, 합장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전지에 신체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17일에는 한스복지재단을 떠나 스리랑카 남부 마타라 지역 오위티가마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였다. 봉사단은 3일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시각장애인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수리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의료봉사와 함께 진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시각장애

인 시설에 컴퓨터를 기증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이번 해외봉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민들과의 연대였다. 봉사단 코디네이터 및 선발대 소임을 맡은 산프시리 스님은 7년 동안 한국에서 이주민을 도운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봉사단 가이드와 통역인들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현지 사찰 및 시설들과 연계가 원활할 수 있었고,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통역인들 덕에 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봉사단 활동이 활기를 띌 수 있었다.

단장으로 참여한 광주 아시아 밝음 공동체 대표 도제스님은 “불교국가 출신의 스님들이 이렇게 큰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스님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한국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잘 정착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뻐고, 앞으로도 화합한 이주노동자들과 스님들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그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스리랑카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과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떠난 마주협 첫 해외봉사 활동은 8월 21일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사히 원만회향 하였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①한스복지재단 환영식 후 기념사진 ②한스복지재단 교육봉사에서 풍선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③마주협이 기증한 컴퓨터를 사용하며 기뻐하는 시각장애인시설사람들 ④사찰에서 이루어진 마을 축제 다하이트리아 ⑤시각장애인시설 숙소를 수리하는 봉사단 <사진제공, 불교신문>



## 나눔결사 실천, 바자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정 지원

지난 8월 27일과 28일 직할교구신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 법회를 열고, 조계사 앞마당에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나눔 바자회는 한국 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마련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바자회 기간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는 박재동 화백이 기증한 작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작품 판매 수익금 역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을 후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후원 대상 다문화 가정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회원단체를 통해 구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토안 가족,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의 보디프리오와 이사니 부부,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의 응우엔티엔가족과 레몽투이 가족 등 네 가족을 선정하였다.

응우엔티엔씨는 “남편이 1년 전 사고

로 반신불수가 되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생활비는 경기도 평택 소재 LG 전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 4,000원을 받아 마련하고 있다. 28개월 된 아들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긴다. 이번에 받게 될 후원금으로 생활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 불교와 이주민, 그것이 알고싶다

### 한국에서의 외국인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은 크게 서양출신과 동양출신으로 나눌 수가 있다. 다른 분류로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과 초창받아 오신 스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양출신 스님들의 국적은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이며, 동양출신으로는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오신 스님들이 있다. 미국, 폴란드 등의 출신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이 많은 반면, 동양출신 스님들의 경우 자국 종단의 승적을 유지하고 계신 스님이 많다. 동양출신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을 위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동양출신의 스님들은 전국에서 법회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과 경

기도 지역에 위치한 법당을 보면 서울 시내에는 몽골법당, 의정부에는 스리랑카 법당, 네팔 법당, 태국 법당이 있으며, 김포에는 방글라데시 법당, 군포에는 캄보디아 법당, 평택에는 스리랑카 법당이 있다. 이외에도 인천에 위치한 미얀마 법당, 대전, 대구, 광주, 구미 등에서도 이주민들을 위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 126만에 비하면, 아직 자국민들을 위한 법회가 적은 실정이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종단과 사찰 그리고 불교계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서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글 남춘호(마주협 팀장)